

# 국 외 연 수 보 고 서

- 연 수 국 : 체코, 오스트리아
- 연수기간 : 2018. 9. 12. ~ 9. 20. [7박9일]
- 연수인원 : 21명(의원 16명 / 수행직원 5명)
- 연수목적 : 선진지 견학 / 우수문화 비교시찰



중 량 구 의 회

# 목 차

## 제1장. 국외연수 개요

<input type="checkbox"/> 연수배경	-----	2
<input type="checkbox"/> 연수목적	-----	2
<input type="checkbox"/> 연 수 국	-----	2
<input type="checkbox"/> 연수기간	-----	2
<input type="checkbox"/> 연수자 명단	-----	3
<input type="checkbox"/> 연수경과보고	-----	3
<input type="checkbox"/> 연수일정	-----	4

## 제2장. 방문국 현황

<input type="checkbox"/> 체코·오스트리아 개요	-----	5
--------------------------------------	-------	---

## 제3장. 연수내용

<input type="checkbox"/> 주요 시설 및 기관 방문	-----	7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책 활용을 위한 제안	-----	24

## 제4장. 연수후기 및 소감 ----- 27

# 국 외 연 수 보 고 서

## 제1장 국외연수 개요

### □ 연수 배경

- 1992년 소비에트연방(舊 소련) 해체 이후, 과거 동유럽 공산국가 중 시장경제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체코와 유럽의 맹주로 군림한 합스부르크 왕조 오스트리아 제국의 후예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하나로 문화와 예술의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그들의 문화와 국가정책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우리의 문화와 정책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차이점을 이해하고자 함.
- 전 세계적인 화두인 4차산업 혁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선두주자인 오스트리아와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연간 동유럽 최대의 관광객이 몰리는 도시인 체코의 프라하 등을 방문하여, 우리구 정책에 도입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함.
- 국외연수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트렌드를 몸소 체험하여 사고와 정책의 폭을 확대하고, 지구촌의 다양한 정책과 문화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을 키우고자 함.

### □ 연수목적

- 국외연수를 통하여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고 최신 정책과 문화를 체험하여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연 수 국 : 체코, 오스트리아

□ 연수기간 : 2018. 9. 12.(수) ~ 9. 20.(목) (7박9일)

□ 연수자 명단

○ 총 21명 : 구의원 16명, 수행직원 5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구 의 장	조 희 종	의 원	임 익 모
부 의 장	조 성 연	의 원	서 상 혁
의회운영위원장	은 승 희	의 원	신 하 균
행정재경위원장	최 경 보	의 원	장 신 자
복지건설위원장	왕 보 현	의 원	최 은 주
의 원	김 미 숙	수 행 직 원	황 종 석
의 원	김 영 숙	수 행 직 원	이 영 진
의 원	김 진 영	수 행 직 원	최 선
의 원	나 은 하	수 행 직 원	허 재 혁
의 원	박 열 완	수 행 직 원	이 경 미
의 원	오 화 근		

□ 연수 경과보고

- 2018. 8. 6. / 국외연수 실시여부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018. 8. 16.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개최
- 2018. 8. 30. / 의원 공무국외연수 총괄 계획 수립
- 2018. 9. 4. / 대행업체 계약 체결
- 2018. 9. 12 ~ 9. 20. / 공무국외연수 실시
- 2018. 11. 5. / 국외연수보고회 개최

□ 연수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장소 및 기관	업무수행 내용
제1일 09/12 (수)	인 천	프 라 하	연수지 이동	
제2일 09/13 (목)	프 라 하	프 라 하	프라하 저탄소 녹색도시, 차 없는 거리 첼레트나, 존 레논의 벽	차 없는 거리 시찰 및 문화탐방
제3일 09/14 (금)	프 라 하	짚 썬 부 르 크	중세 도시 체스키크롬노프 시찰	문화 및 문화재 탐방
제4일 09/15 (토)	짚 즈 부 르 크	비 엔 나	게트라이데 거리 (특색 있는 간판으로 유명)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스마트 신호등	스마트시티 비엔나 각종 시설물 견학, 간판경관 시찰
제5일 09/16 (일)	비 엔 나	비 엔 나	셴부른궁전, 오페라극장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비엔나 스마트 시티 ‘아스펜’ 방문	기관 및 문화재 탐방
제6일 09/17 (월)	비 엔 나	부 루 노	호프부르크 왕궁 시립묘지공원(베토벤 안장) 비엔나 신청사	비엔나 문화탐방 및 공공청사 탐방
제7일 09/18 (화)	부 루 노	프 라 하	프라하성(대통령관저) 성비트교회, 카를교	문화 및 문화재 탐방
제8일 09/19 (수)	프 라 하	프 라 하	프라하 에너지공기업 ERU 방문 프라하 출발	기관방문 및 귀국 항공탑승
제9일 09/20 (목)		인 천	비행 인천공항도착	-

## 제2장 방문국 현황

### □ 체코 개요

구분	체코 공화국(Czech Republic)
면적	7만8천km <sup>2</sup> (한반도 면적의 약 0.357배)
인구	1,062만 명(2018년 기준) (세계 87위)
수도	프라하
주요도시	프라하, 카를로비바리, 부르노
언어	체코어
기후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겨울에 급속히 추워지고, 여름에는 기온이 급상한다. 지구온난화로 과거에 비해 봄과 가을이 짧아진 편임
민족구성	체코인(90%), 모라비아인(4%), 슬로바키아인
종교	로마가톨릭(27%), 개신교(2%)
건국일	1993년 1월 1일 (1918~92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을 이루다 1993년 1월 1일 분리독립)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양원제)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원수(대통령): 밀로시 제만, 2013. 3월 취임(5년 임기)</li> <li>○ 정부수반(총리): 안드레이 바비시, 2018년 6월 취임</li> </ul>
GDP	2,515억 달러(세계 45위)

□ 오스트리아 개요

구분	오스트리아(Republic of Austria)
면적	83,879km <sup>2</sup> (한국의 0.38배, 세계 115위)
인구	875만명(세계 98위, 2018년 기준)
수도	Wien(빈)
주요도시	빈, 잘츠부르크, 그문덴, 바덴, 도른비른
언어	독일어
기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존재. 대서양 기후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온난. 여름 평균기온은 23.2℃로 무덥지 않으며 겨울에는 춥다.
민족구성	게르만 계통의 오스트리아인(91%), 유고슬라비아인(4%), 터키인
종교	가톨릭(74%), 개신교(5%), 이슬람교(증가 추세)
건국일	1818년 11월 11일(오스트리아 제1공화국)
정부형태	연방제 / 양원제
국가원수	알렉산더 판데어발렌
GDP	4,776억 달러(세계 27위)

## 제3장 연수내용

### □ 주요 시설 및 기관 방문

#### 1. 체코 프라하 [차 없는 거리 "첼레트나(Celetna)"]

□ 방문일자: 2018. 9. 13.

□ 방문목적

☞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 받는 “차 없는 거리”의 현주소 확인

☞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차 없는 거리 개선방안 강구

□ 방문내용: 차없는 거리 "첼레트나(Celetna)" 현황

☞ 첼레트나(Celetna) 거리는 구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라하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로 프라하에서 동부의 보헤미아로 이어지는 오래된 교역로가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과거 왕이 프라하성의 성당으로 행차할 때 이 길을 이용한 까닭에 “왕의 거리(Royal way)”라 불리는 거리로 프라하 구시가 화약탑에서 구시가 광장까지 이어지는 거리를 칭한다.

☞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프라하 역사지구 내에서도 과거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 거리는 중세시대 귀족이나 중산층의 바로크양식 건축물들이 많아 걷기 좋은 거리로 유명하다. 중세시대부터 쇼핑의 거리로 명성을 떨친 이 거리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프라하시는 첼레트나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정하고 주변 상점이나 거리를 시에서 관리하면서 비공식적으로 한해 1억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프라하에서도 가장 핫한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다.

☞ 현재 첼레트나 거리는 체코의 세계적인 특산품인 크리스탈 제품 등 각종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과 전통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카페, 서점 그리고 소규모 음악회가 열리는 공연장 등이 들어서 있으며, 구시가 광장을 비롯한 거리 곳곳에서 행위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 방문결과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교통혼잡, 에너지문제 등에 대한 심각성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201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6시까지 신내10단지에서 구청 후문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랑구 차 없는 거리: 봉화산로 45길]

☞ 시행초기만 해도 아름다운 중랑천 사진전, 에코마일리지 홍보, 복지제도 안내, 건강체험관, 황실배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행사를 병행하여 봉화산을 찾는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제도 본연의 목적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나, 시행 7년이 지난 현재 우리구의 차 없는 거리는 유명무실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시점이 되었다.

☞ 먼저, 현재 차 없는 거리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정되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을 생각하고 주민들이 가득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차량소통과 유동인구가 적은 곳이 아니라 차량소통이 많은 지점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사고의 역발상이 필요하다.

- ☞ 제도에 맞는 적절한 지역을 찾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현재 유명무실한 차 없는 거리를 활성화 하기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행정관청 주도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점에서 체코 첼레트나 거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첼레트나 거리의 종착점인 구시가지 광장은 다양한 예술가들로 가득했다. 이제 관이 주도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공연 단체나 예술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관이 책임져야 한다.
- ☞ 민간이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은 생명력이 길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차 없는 거리 활성화의 주체가 주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차 없는 거리를 활성화 하면서 새로운 거리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차 없는 거리의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 차 없는 거리 활성화를 통해 차보다 보행자 우선의 정책을 실현하고 대기 오염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으면 한다. 첼레트나 거리를 가득 매운 관광객들을 보면서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중랑구만의 특화된 명품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과 고민이 하루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수에 참가한 의원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첼레트나 거리



통행금지인 자전거도 포함

## 2.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게트라이데 거리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

□ 방문일자: 2018. 9. 15.

□ 방문목적

- ☞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간판이 가득한 간판거리 시찰
- ☞ 중랑구 간판정비 사업의 방향설정을 위한 벤치마킹

□ 방문내용: 간판의 거리 "게트라이데(Getreide)" 현황

- ☞ 게트라이데(Getreide) 거리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잘자흐 강의 슈타츠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리다. 카페와 레스토랑, 상점이 늘어선 구시가의 대표적인 변화가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유명하다. 길의 폭이 넓지 않고 길게 뻗어 있는 게트라이데 거리 양쪽으로 높이 5층~6층의 건물이 늘어서 있다.

이 거리가 관광객을 유인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상점마다 걸려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는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간판이다.

- ☞ 상점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나는 개성 있는 철제 세공 간판이 걸려 있는데, 작고 예쁜 아기자기한 간판에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간판구경이 흥미롭다. 게트라이데 거리 간판의 특징은 간판이 크지 않고 간판에 글 대신 판매하는 상품을 그려 넣은 것인데 이는 중세 시대 문맹자들을 위한 배려에서 시작된 전통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서점은 책, 제과점은 빵, 우산가게는 우산모양 등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상점마다 걸려 있는 독특하고 예쁘게 세공된 간판은 고풍스러운 건물과 어우러져 예술적인 느낌마저 풍긴다.

□ 방문결과

- ☞ 우리나라 간판의 특징은 건물 전체를 가득 매울 만큼 사이즈가 크고 불법으로 설치한 간판이 많다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낡고 커다란 간판은 건물경관은 물론 도시의 경관마저 저해하고 있고, 간판의 규모가 크다 보니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간판유지에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한, 해마다 강풍에 의한 간판추락과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 ☞ 우리구도 기존 간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크고 낡은 난립간판을 업소 특성에 맞는 작고 예쁜 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을 사용하고 타이머 기능을 간판에 적용해 전력 소모도 최소화하는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판개선을 위해 올해까지 21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5억원의 지원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아름답고 실용적인 간판으로 유명한 게트라이데 거리 간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사이즈가 작다는 것이다. 사이즈가 작은 만큼 설치비용도 적게 들고 관리도 용이하다. 현재 1개 업소당 250만원의 간판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간판의 사이즈를 줄이면 적은 지원금으로 더 많은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도시의 미관도 향상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게트라이데 거리의 작고 예쁜 간판



우산을 형상화한 간판

### 3.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지공원(Zentralfriedhof: 음악가의 묘지) 방문

- 방문일자: 2018. 9. 16.
- 방문목적
  - ☞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묘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중인 묘지공원 시찰
  - ☞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 중랑구에 우수사례 도입

## □ 방문내용: 빈 중앙묘지공원(음악가의 묘지) 현황

- ☞ 1874년에 조성된 빈 외곽에 위치한 묘지공원이다. 빈 시내에 흩어져 있는 5곳의 묘지를 한곳으로 모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성하였는데 조성 초기에는 시민들의 무관심과 협조 부족으로 묘지 이전이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이에 1881년 세계적인 음악가인 루드비히 판 베토벤,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등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묘지이장을 법률로 정하여 이장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 ☞ 유명 영화배우와 역대 대통령, 기업의 총수는 물론 특히 세계적인 음악의 거장들이 잠들어 있어 ‘음악가의 묘지’ 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총 면적이 240만㎡로 방대한 크기를 자랑하며 약 35만 기의 묘가 있는데, 유럽에서 독일 함부르크주에 있는 올스도르프 묘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묘지공원이다.
- ☞ 중앙묘지공원은 넓은 녹지대 속에 조성되어 많은 묘가 있지만 묘지라기보다는 아름다운 공원의 느낌을 준다. 묘지공원의 메카인 ‘음악가의 묘지’는 모차르트의 가묘를 중심으로 거장들의 묘지가 반원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데, 베토벤,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브람스 등의 묘와 모차르트의 기념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묘지공원이 오스트리아에서는 휴일에 가족들이 함께 찾는 피크닉장소나 여유로운 휴식을 제공하는 산책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고 중랑구 망우묘지공원의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 □ 방문결과

- ☞ 우리구는 2021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서울의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망우묘지공원(舊망우리공동묘지)를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 ☞ 망우묘지공원은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빈의 중앙묘지공원과 여러 면에서 흡사한 점이 많다. 먼저, 도심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각 분야 유명인사가 공원 전역에 안장되어 있다. 또한 공원 전역이 녹음으로 덮여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 ☞ 빈 중앙묘지공원에 모차르트 등 유명 음악가의 묘지가 있는 것처럼, 망우 묘지공원에도 만해 한용운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박인환 선생과 방정환 선생으로 대표되는 문인, 대한민국 근대미술의 상징과도 같은 화가 이중섭 등 50~60여 분의 기라성 같은 유명인사의 묘역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망우묘지공원이 빈 중앙묘지공원과 유사한,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온 것을 되돌아 보면, 좀 더 빨리 망우묘지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 ☞ 망우묘지공원은 용마산이라는 천혜의 공간에 자리잡고 있고 대한민국 근대사를 장식한 중요한 인사들이 안장되어 있어 빈 중앙묘지공원 못지 않은 주민 휴식처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여건은 충분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묘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공원 내 각종 시설에 대한 보수와 현대화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망우묘지공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확충하고 정류장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 ☞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사업주체가 서울시인 만큼 중랑구는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중랑캠핑숲, 웰컴센터, 용마테마공원을 연결하는 서울시의 [종합힐링타운] 조성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중랑구의 구상인 유스호스텔 건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이 조속히 실현되어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공원으로 하루 빨리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묘지공원 '음악가의 묘지'



중앙묘지공원 시설 설명을 청취중인 연수단

#### 4. 스마트 시티 빈(Vienna): Seestadt Aspern

□ 방문일자: 2018. 9. 17.

□ 방문목적

- ☞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인 빈의 스마트 시티 전략 확인
- ☞ 아스페른(Aspern) 시범지구 견학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묵2동의 향후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방향 설정

□ 방문내용: 빈 및 스마트 신도시 Seestadt Aspern 현황

- ☞ 빈은 글로벌 컨설팅사인 머서(Mercer)가 선정한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나왔다. 최근 빈은 독창적인 도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Now. Forever.’라는 슬로건을 채택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및 자연적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비엔나 프레임워크 전략(Smart City Wien Framework Strategy)’을 갖추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 ☞ 도시의 친밀감을 높이고 타 도시와의 차별화를 위해 많은 도시들이 슬로건을 채택하고 있다. 빈 관광청은 도시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슬로건인 ‘Now. Forever.’를 2016년 10월 채택하였는데 2009년부터 사용한 그 전 슬로건인 ‘Now Or Never.’는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빈을 방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 슬로건을 사용한 5년간 빈을 찾은 해외 방문객이 유럽 국가에서는 25%, 유럽 외 국가에서는 78%나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2009~2016년 비엔나의 슬로건 ‘Now Or Never’]

- ☞ 현재 중랑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중랑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선 7기 슬로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중랑구의 향후 4년을 상징하는 참신하고 독창성이 돋보이는 슬로건을 선정해 중랑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빈의 경우 슬로건을 각국의 언어로 만들어 빈을 방문한 각국의 관광객에게 친밀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채택될 우리구 슬로건도 각국의 언어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제작된 슬로건 ‘Now. Forever’ ]

- ☞ 비엔나는 새로운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빈의 도시발전 전략인 ‘스마트시티 빈 프레임워크’ 는 2050년까지 주민에게 최상급의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삶의 질 (Quality of Life), 자원(Resources), 혁신(Innovation) 세 가지 영역에서 추진 중인데 세부적인 핵심 주제는 교육과 연구, 건강과 사회 서비스, 도시개발, 교통과 도시계획, 정보통신 기술, 환경과 기후 보호 등이다.
- ☞ 빈 스마트 시티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대 배출량의 20%로 감축하고 사용에너지의 5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개인 차량의 이용률을 2030년까지 15%로 낮추기 위한 계획도 진행 중이다. 빈의 신도시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자전거길, 지하철, 트램 등 대중교통을 완벽히 자가용보다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 ☞ 2050년까지 빈 시내 지자체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건물의 냉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연간 1인당 1%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고 기술집약형 산업을 육성하여 전체 수출량의 60%를 기술산업제품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 ☞ 우리 연수단은 빈이 추구하고자 하는 스마트 시티 건설현장인 신도시 Aspern (아스페른)을 방문했다. 아스페른은 빈이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목표가 구현되고 있는 시범지구라 할 수 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했을 당시 신도시 곳곳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일부 아파트는 입주 완료된 구역도 있었다. 우리 연수단에게 아스페른 신도시에 대한 브리핑을 담당한 빈 시청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기술홍보 담당 공무원인 Nikolaus Summer씨의 아스페른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그는 아스페른에서 시도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 정책이 빈은 물론 오스트리아 전역 더 나아가 전 유럽에 도입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커다란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아스페른 신도시의 아파트. 특이한 점은 아파트 동마다 지하 주차장을 완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건물의 입주자가 하나의 주차장을 함께 이용하도록 설계하였다는 점이다. 많은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대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구축해, 개인차량 이용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 ☞ 아스페른은 빈 스마트 시티의 주요 목표인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에너지 재사용, 개인차량 사용 감소 및 친환경 차량 대체 등을 통해 삶의 질이 높고, 여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인간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 ☞ 아스페른의 주택은 100% 임대주택으로 망국병이라고도 불리는 부동산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거문제를 해결해 젊은 계층을 유입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자족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담당자의 설명에, 우리사회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인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임대주택으로 현명하게 해결해 가는 빈의 정책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 4천만 유로를 투입해 2013년 10월에 시작한 아스페른 스마트 신도시 건설은 2028년까지 2만여 명이 거주하는 미래도시 구축을 목표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조성 중인 양원지구와 도시재생이 추진 중인 묵동의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 아스페른 신도시로 대표되는 빈의 도시개발정책은 우리구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아스페른 홍보관 브리핑 룸에서



아스페른 신도시에 대한 빈 담당자의 브리핑



브리핑 후 아스페른 신도시 건설현장을 배경으로

## □ 방문결과

- ☞ 우리 연수단은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2009년 유럽 친환경 도시 4위, 2014년 세계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도시 1위에 오를 만큼 스마트 시티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과 빈 시가 미래 스마트 시티의 모범안으로 조성중인 아스페른 스마트 신도시 조성현장을 방문했다.
- ☞ 연수단이 빈과 아스페른을 시찰하고 담당 직원에게 빈 스마트 시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시티의 최종 목표가 [인간을 위한 도시]라는 것이었다.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도시에 함께 거주하는 모든 계층이 경제적 · 문화적으로 만족하며 조화롭게 살아 가는데 도움이 되는 도시시스템. 빈이 추구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 ☞ 생활에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친환경 에너지 도입과 에너지 재사용으로 관리비가 저렴한 거주 및 사무공간, 편리한 대중교통과 인간 중심의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저렴한 임대아파트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의 공공화 등 빈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최종 과제는 인간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 ☞ 우리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새로운 중랑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 도시개발, 복지, 협치, 미래중랑 등 분야별 역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5개 분야 역점 사업은 신내차량기지 이전, 묵2동 도시재생사업, 면목선경전철,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 문화예술회관건립, 면목복합행정타운 조성 등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
- ☞ 우리 연수단은 이번 연수를 통해 Smart City의 Smart라는 의미가 단순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산업 혁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술적인 편리함이 스마트 시티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인적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 복원을 통해 경제적 계층의 차이를 극복하여 도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간을 위한 도시” 를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 차제에 우리구 전체의 개발에 대한 청사진과 도시개발의 목표를 설정해 민선7기 중랑구 분야별 역점사업이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뉴타운사업 해체 이후 도시인프라 부족과 마을 공동체 해체, 지역경제 몰락으로 쇠락을 거듭하던 중 얼마 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묵2동의 도시재생에 빈 스마트 시티의 사례를 참고해 묵2동이 뉴타운 해체로 인한 침체의 여파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5. 체코 에너지 공기업 ERU(에너지규제청)

□ 방문일자: 2018. 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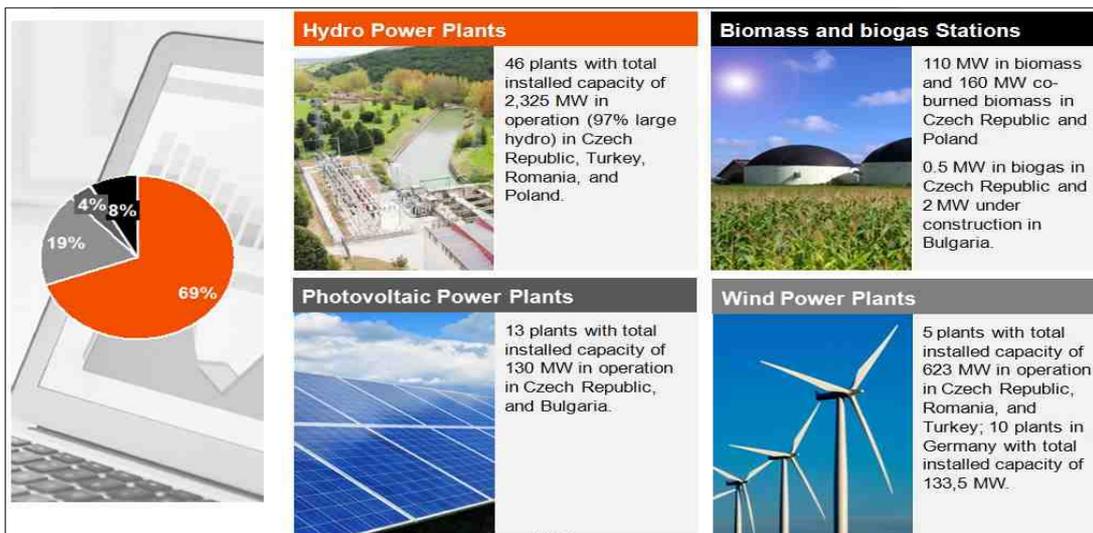
□ 방문목적

- ☞ 그린에너지를 추구하는 체코의 에너지 공기업을 방문해 에너지 정책의 현주소 확인
- ☞ 우리구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벤치마킹

□ 방문내용

- ☞ 우리 연수단은 체코의 에너지 공기업인 ERU를 방문해 체코 에너지 정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체코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화석연료인 석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되는 석탄에너지의 비중이 높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체코가 그린에너지 분야로 전력생산 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 ☞ 2015년 대비 2017년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율을 살펴보면 풍력에너지가 0.7%에서 1.3%, 바이오에너지가 3.1~4%로 높아졌으며 특히 태양광 에너지는 2.7%에서 9.1%로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눈여겨 봐야할 것은 원자력(NPP)에너지원이 2015년 32%에서 2017년 19%로 뚝 떨어진 것이다. 이런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체코가 원자력에너지원에서 태양광에너지가 대표적인 천연에너지로 전력생산의 방향을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 ☞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원전폐기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의 경우 원전사고 이듬해인 1987년 원전을 폐기하고 신규원전 건설도 완전히 중지해 탈원전 국가가 되었다. 스위스는 2017년 원전폐기를 국민투표에 붙여 2020년까지 원전을 폐쇄하는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냈는데, 이는 원전폐쇄에 따라 1인당 연간 300만원의 전기료 추가납부라는 부담을 감수하고 나온 결정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도 지난 2011년에 2022년까지 자국 내의 모든 원전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원전을 폐기하는 것은 개인적 추가부담이 있더라도 원전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 체코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RU 관계자는 체코가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고 천연에너지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향후 체코 에너지의 가정 중요한 섹터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는 태양광을 비롯해 수력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의 활용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체코는 원자력의 비중은 축소하되 효율적인 원자력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시설 유효기간이 짧은 태양광의 보안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 ☞ ERU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터키,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에서 국가별 실정에 맞도록 수력, 바이오, 풍력,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ERU의 에너지 해외시장 현황]

- ☞ 체코의 에너지 공기업인 ERU는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시에 환경보존이라는 세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특히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년여 동안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 특히, 구단위의 행정부가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 시찰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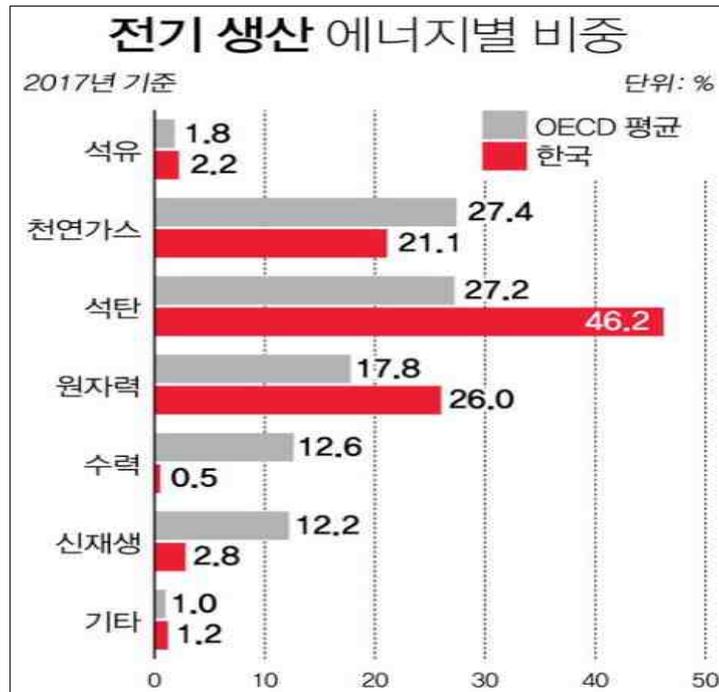


[ERU 에너지사업에 대한 브리핑]

#### □ 방문결과

- ☞ 우리 연수단은 체코의 에너지 공기업인 ERU를 방문해 체코 에너지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을 실현했고 탈원전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었다.
- ☞ 우리나라의 2017년 전력생산 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석탄 46%, 원자력 26%, 천연가스 21%, 신재생에너지 2%, 수력 0.5%의 순이다. 우리나라도 체코 등 다른 나라와 같이 석탄 등 대기오염 요인인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이 OECD 선진국에 비해 높은 반면, 수력이나 풍력, 신재생에너지 등

천연에너지에 대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2017년 전기생산 에너지별 비중]

- ☞ 문재인 정부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원전과 화력을 줄이는 대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전력량이 전체 전력 발전량의 20%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 우리의 미래세대가 건강한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비율을 점차 확대해 가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 우리구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마폭포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 지원, 취약계층 LED조명 무상보급,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 운영, 에코마일리지 운영,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운동 등이 그것이다.
-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까지 구예산을 편성하지 않다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요청해 2017년에는 추경예산으로, 2018년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정의 미니발전소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 ☞ 노원구와 영등포구의 경우 구청사 주차장과 건물 외벽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구도 기존 공공건물 및 신축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 운용의 타당성을 조사한 후 실효성이 있는 청사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영등포구청 청사 외벽 태양광 발전시설



노원구청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 ☞ 우리 연수단은 국제 사회의 탈원전 및 신재생 또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에너지 정책이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개개인의 의식 전환과 이해 그리고 작은 실천 없이는 국책사업이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 ☞ 천연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에너지 절약 등 구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충실히 준비하고 추진해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 기타 정책 활용을 위한 제안

### 1. 횡단보도 안전 발광기

- 횡단보도 중앙에 발광기를 설치하여 야간에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위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횡단보도 교통사고 방지역할을 할 수 있음
- 발광기 설치 위치를 차량 진행방향의 횡단보도 끝에 설치하면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했을 때보다 운전자의 시야에 뚜렷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음



횡단보도 유도발광기 설치모습



유도발광기

### 2. 휴지 및 먼지 집진기

- 미화원 1인이 손쉽게 운용할 수 있는 청소기 도입
- 미화원의 작업효율을 높이고 미화원 근로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음
- 특히, 가을철 낙엽수거 작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



### 3. 지주 없는 가로등 및 보안등

- 유럽 국가의 가로등은 차도 양쪽 건물의 벽에 줄을 설치하고 그 중앙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주가 없음
- 가로등이나 보안등 지주가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지주 없는 가로등 및 보안등 도입 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뒷골목에 설치하는 보안등에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할 경우 설치가 용이해 지주설치 예산도 줄이고 무단투기도 방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
- 다만, 유럽식 보안등이 우리나라의 기후여건(EX: 태풍에 의한 강풍)에 적합한지 그리고 보안등 설치에 필요한 구조물을 건물에 설치해야 하는데 건물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한 합의를 얻어내는 문제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오스트리아의 보안등



체코 프라하 가로등

#### 4. 인도를 활용한 주차장

- 수백년 이상 오래된 유럽 건물의 특성 상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건물이 적은 관계로 유럽 국가들은 개인의 차량이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구축하는 한편 한정된 공간을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인도를 활용한 주차공간도 이 중 하나인데, 인도의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투리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면목로의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편도 1차선인 면목로는 버스가 주차장에 정차하는 동안 차량이 전혀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면목로 전체를 2~3차선으로 확장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버스정류장 앞 토지를 매입해 버스가 정차하는 곳만 2차선으로 만들면 버스정차로 인한 차량흐름 방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를 안쪽으로 줄이고 주차공간 확보

대형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 편도 1차선인 면목로(면목역~광진구 경계)의 차량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버스정차장을 위와 같은 형태로 만들면
- 버스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에도 효과가 있고
- 면목로 전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에 비해 소요예산도 적음

## 5. 폐기물 수거가 용이한 휴지통 설치

- 가로변 휴지통을 횡단보도 신호등 지주나 교통 표지판 지주 등에 설치
- 환경미화원의 폐기물 수거 용이
  - 휴지통 하단을 열수 있도록 만들어 휴지통 하부를 열면 폐기물이 수거통으로 떨어져 미화원의 수거작업이 용이함



- 재활용 성상별 수거함에 사진을 넣어 고령자 및 어린이들도 수거함 구분이 쉽게 함
- 수거함 입구를 투입은 쉽지만 수거함이 가득차도 폐기물이 수거함에서 넘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작하여 거리환경이 깨끗함

## 6. 가로청소 미화원 폐기물 수거함

- 가로청소 미화원 작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휴대와 이동이 편리한 수거함을 보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우리구의 경우 미화원 개인이 카트 위에 봉투를 놓고 가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음. 체코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청소 폐기물수거용 카트는 바퀴가 있고 크기가 적당해 가로청소 미화원 작업능률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우리구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4장 연수후기 및 소감

- 7박 9일간의 중랑구의회 공무국외연수는 구 소련(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 동유럽 국가 중 경제·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최근 선두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체코와 국가의 수도인 빈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여러 차례 선정된 바 있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이번 연수는, 근대 이후 현재까지 문화, 정치, 사회, 과학 등의 분야에서 인류 문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유럽 국가의 제도나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통해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정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소중한 기회를 만들고자 실시되었다.

-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사의 주인공은 유럽이 아니었다. 찬란했던 동양의 문화와 과학에 비해 보잘 것 없던 서양, 즉 유럽이 세계사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동양이 전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서양은 산업혁명 이후 과학, 정치, 인권 등의 분야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가며 비교적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그에 따른 수많은 희생도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세계사라는 무대에서 아직까지 유럽으로 상징되는 서양이 주인공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말이 있듯이 유럽의 문화와 정책도 많은 시간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번 연수기간 동안 연수단은 유럽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람 중심” 의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지가 각 분야의 모든 정책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 복지강국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과감하고 전폭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국가의 청렴도가 높고 자기가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나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국가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이번 연수의 소중한 수확이라고 본다. 내가 낸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국가가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져 준다는 신뢰 속에서 유럽의 선진국은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 금번 7박 9일의 공무연수를 통해 중랑구의회 연수단은, 오랜 기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선진 제도를 시행 중인 유럽을 방문해 견문을 넓히고 개인의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유럽이라 해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 우리가 보고 배워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접하였고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에게 많은 숙제를 남긴 연수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끊임없는 문제제기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확신한다.
- 위대한 질문의 매력은 ‘답하긴 어렵지만 그 질문 자체가 가진 울림이 크다’ (인용: 정재승 ‘열두 발자국)는 말이 있다. 우리 연수단은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계기로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가능하면 그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안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하면서 연수 후기를 마친다.